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북한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여러 아리랑이 창작되었다. 2002년 처음 공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2010년까지 공연되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이외에도 가요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을 비롯하여 소설, 동시 군중공모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이 발표되었다.

북한에서 창작 〈아리랑〉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김일성민족문학’, ‘태양민족문학’, ‘단군문학’ 등 민족의 상징적 코드를 정치와 결합하여 왔다. 2000년을 전후한 창작 아리랑은 민족제일주의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코드로서 선택한 것이다.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아리랑’ 코드를 통해 북한 체제의 위기를 민족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리랑의 종자를 ‘강성부흥’에 맞춤으로써 선군시대의 희망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리랑민족’이다. 창작 아리랑은 북한이 민족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대중적 확산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주제어: 아리랑, 아리랑 축제, 종자, 북한 문화, 민족문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O3301).

** 이 논문은 2010년 12월 6일 단국대학교 부설한국문화기술연구소 주최 제16회 전국학술대회 ‘세계화 시대의 민족제일주의 예술론-북한문학예술론 읽기’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아리랑을 소재로 한 창작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는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공연된 이후 2005년에 이어 2010년까지 공연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작품을 몇 년 동안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연한 예는 북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공연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이 처럼 대규모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아리랑’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갖는 의미도 특별하다. 2002년의 <아리랑>은 준비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하 직책 생략)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첫태양의 노래’라고 하였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하 직책 생략)의 지시로 작품 제목이 ‘아리랑’으로 바뀌었다.²⁾ 북한에서 절대적 존재,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태양’이라는 제목을 버리고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체제의 건재 과시라는 정치적 목적, 관광수입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측면은 없는 것일까? 본 연구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³⁾

1) 북한의 대집단 체조가 몇 차례에 걸쳐 1~2년 동안 공연된 적은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연례적으로 공연된 경우는 없었다. <아리랑>은 대규모 군중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일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소품이나 혁명가극과는 성격이나 규모가 다른 작품이다.

2) “집단체조 ‘아리랑’ 원제는 ‘첫 태양의 노래,’” 『연합뉴스』, 2001년 12월 19일.

3) 아리랑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되는 연구성과로는 『한국문학과 예술』, 6집(승실대

본 연구에서는 주목하는 것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이 공연될 즈음하여 나온 여러 편의 ‘아리랑’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아리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일련의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소개되었다. 물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 이전에도 민요 아리랑을 편곡하거나 가요로 만든 작품이 있었다.⁴⁾ 하지만 2000년을 전후하여 새롭게 등장한 ‘아리랑’은 고난극복, 강성부흥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다. ‘아리랑’의 음악적 특성은 배제되고, ‘아리랑’은 ‘아리랑민족’의 상징성이 부각된 작품들이다. 즉 일련의 ‘아리랑’ 작품은 ‘아리랑민족’의 강성부흥과 미래를 노래하는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에 즈음하여, ‘아리랑’이라는 표제의 가요와 소설, 그리고 군중창작 작품들은 ‘아리랑’은 21세기 북한을 대표하는 ‘아리랑 민족’의 상징적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일련의 아리랑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해석된 북한의 여러 아리랑은 곧 분단의 시간만큼 달라진 남북의 정서 차이를 반영하는 동시

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이 있다. ‘아리랑특집호’라는 부제가 붙은 이 학술지는 ‘아리랑 연구사’에 대한 검토부터 대중가요, 현대대중예술, 현대시 속의 아리랑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전파양상, 북한과 해외의 아리랑, 아리랑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논문 8편이 실려 있다.

4) 2000년 이전에도 <아리랑>은 음악적으로 여러 형태로 불려졌다. <아리랑>은 신민요 <아리랑>을 바탕으로 교향곡이나 민요, 전자음악으로 편곡하거나 연주곡으로 불렸으며, 음악적 현대화된 ‘아리랑’으로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교향곡 <아리랑>을 비롯하여 보천보전자악단 리경숙의 레퍼토리 민요 <아리랑>, ‘특색 있는 조선식 전자음악 연주곡’ <아리랑>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민요 <아리랑>을 바탕으로 편곡한 것으로서 음악적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미래에 대한 문화적 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민족적 정서에 대한 진단과 통일문화에 대한 모색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아리랑의 기원과 정서

우리 민족의 대표가 된 <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렸는지, 어떤 의미로 불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리랑의 기원 역시 ‘아리랑설(我離郎說)’로부터 ‘아이농설(我耳聾說)’, ‘아랑전설(阿娘傳說)’ 등으로 다양하다. 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곡조가 붙으며, 장단과 사설도 다양하게 분포한다.⁵⁾ 북한에서도 <아리랑>의 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명될’ 것이라고 하면서 삼국시대 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고려후반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면 <아리랑>은 과연 언제부터 불리워져왔는가? 민요 <아리랑>의 가사가 순수 우리말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기 이전 즉 우리나라에서 한문이 사용되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불리워진 것으로 된다.

5)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남북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원백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이다. 김연갑, 『북한 아리랑 연구』(강릉: 청송, 2002), 115쪽: “1970년대까지 아리랑 연구는 주로 이 분야에 대해 집중되었고, 그 결과 ‘어원백설’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관련 논문도 30여 편이나 이르게 된다. 이는 아리랑의 음악적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 견해는 긴 조흥구로 이루어진 후렴의 반복부가 순수한 우리말로 된 절가형식의 가요창작이 성행한 고려후반기에 <아리랑>이 나왔다는 설이다. 이에 따르면 <아리랑>의 역사는 근 1,000년을 헤아리게 된다.⁶⁾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기원을 제시하면서도 북한에서 가장 유력한 기원으로 보는 것은 ‘성부와 리랑’의 전설이다. 2001년 발표된 박종철의 『아리랑』⁷⁾은 <아리랑>의 대표적인 근원전설로 소개하는 ‘성부와 리랑’의 이야기를 소설로 읊긴 것이다. 북한에서 ‘아리랑’이라는 표제의 소설은 여러 편이 있지만 근원설화를 소재로 한 소설은 박종철의 ‘아리랑’이 유일하다. 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출판사인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아리랑>의 기원을 ‘성부와 리랑’으로 확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요들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리랑>은 우리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며 즐겨 불러 온 민요이다. …… 이렇게 이어지는 <아리랑>은 역사가 매우 깊지만 그 발생과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민간전설들이 전해 오고 있다. <아리랑>이라고 하면 대체로 <본조아리랑>, <신조아리랑(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해주아리랑>, <서도아리랑>을 비롯하여 <열두아리랑>에 <열두고개>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갈래로 전해오고 있으나 <리랑과 성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을 이룬다.⁸⁾

6) 박형섭,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 『민족문화유산』, 4호(2005).

7) 박종철, 『아리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근원설화로 ‘성부와 리랑’의 전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후로 어떻게 정착되고 불려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도 민요 <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세계로 흩어진 민족을 따라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설들이 남녀노소 사이에서 불렸고, 조금씩 개조되는 과정을 통해 <아리랑>의 정서는 곧 민족이 공유하는 정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⁹⁾

<아리랑>이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영화 <아리랑>이었다. 1926년 춘사 나운규가 각본·감독·주연·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공존의 히트를 기록하면서였다.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당연하게 영화 주제가였던 <아리랑>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아리랑은 민족의 수난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¹⁰⁾ 즉 일제라는 강압된 상황 속에서 민족적 정서를 바로 표현하지는 못 하였지만 우회적으로 민족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8) “조선의 전설 아리랑과 그에 깃든 전설,” 『민족문화유산』, 1호(2001).

9) 박형섭,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 “그러면 <아리랑>은 과연 언제부터 불리워져왔는가? 민요 <아리랑>의 가사가 순수 우리말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기 이전 즉 우리나라에서 한문이 사용되기 이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불리워진 것으로 된다. 또한 다른 한 견해는 긴조흥구로 이루어진 후렴의 반복부가 순수한 우리말로 된 절가형식의 가요창작이 성행한 고려후반기에 <아리랑>이 나왔다는 설이다. 이에 따르면 <아리랑>의 역사는 근 1,000년을 헤아리게 된다.”

10) “아리랑”,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154쪽: “아리랑 노래들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당대 인민들의 이리저러한 생활적 감정들이 반영되고 있다. 즉, 아리랑의 민요군 가운데서 <신아리랑>에는 일제의 조선감정시기에 체험하고 있던 우리 인민들의 암담한 생활 감정이 반영되고 있으며 <긴아리랑>에는 살길을 찾아 이국만리로 떠나는 사람들의 슬픔과 울분이 담겨져 있다.”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아리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민요 <아리랑>이 ‘민족적 정서와 수난은 인민들 당하던 쓰라린 고통과 설음, 통치배에 대한 원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¹⁾

3. <아리랑>의 종자와 현대화 양상

1)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통해 본 아리랑의 종자

북한에서 <아리랑>이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폭넓게 일반화된 것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총출연 인물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로, 2002년 처음 공연된 이후 2010년까지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참여하였던 인원들이 교체된 것을 고려한다면 누적 출연 인원은 최소 몇 십만 명에 달한다. 국가 동원체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규모이다.

이처럼 <아리랑>을 국가 상징문화로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

11)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1』(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2), 191쪽: “<아리랑>은……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는 거의 모두가 사랑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버리고 간 님에 대한 애정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얼핏 보면 단순한 사랑의 노래로 볼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해당 시기 우리 인민들이 당하던 쓰라린 고통과 설음, 통치배에 대한 원한 그리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염원이 절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엇인가? 그 이유를 <아리랑>의 종자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의 신민요 <아리랑>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의 유명한 민요 <아리랑>을 상으로 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 속에 널리 구전되고 있는 민요들 가운데는 눈물과 웃음, 기쁨을 담은 <아리랑> 곡조가 많다. 지금 창작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은 이 <아리랑>을 주제로 하여 민족의 운명사와 세태풍속을 서사시적 화폭 속에 황홀하게 펼쳐 보이게 된다.¹²⁾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90(2001)년 9월 4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창작창조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작품을 새 세기의 대결작으로 훌륭히 창작완성할 수 있는 명확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우리 인민이 즐겨 부르던 민요 <아리랑>을 가지고 작품의 대를 세우고 작품의 제명도 <아리랑>으로 하며 민요 <아리랑>과 함께 로동당시대에 나온 명곡들을 넣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훌륭한 작품을 창작완성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¹³⁾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주제는 민요에서 따왔지만 <아리랑>의 정서에 머물지 않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

12) “2002년 봄에 막을 올리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선중앙통신』, 2001년 11월 7일.

13) 백석,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2009).

랑>의 종지는 ‘선군’과 ‘강성부흥’이다.¹⁴⁾ 2002년 초연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군과 강성부흥 종지는 장면구성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환영장’, ‘서장’,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아리랑’, ‘3장 아리랑무지개’, ‘4장 통일아리랑’, ‘종장’의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장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 이념인 ‘주체’, ‘선군’, ‘강성부흥’의 주제가 들어 있다. 2005년 공연에서는 인민의 군대를 비롯해서 이후의 공연에서는 장면 구성방식이나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작품 전체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공연에서도 부분적인 장면을 바꾸었을 뿐 전체적인 구도에서

14) 본사기자 황명희·본사기자 고현주, “선군령장과 <아리랑>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깃든 불멸의 령도” 『로동신문』, 2007년 9월 24일: “주체 89(2000)년 10월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환희와 열광이 노래춤바다로 펼쳐진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보시였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한 일군을 부르시여 오늘 공연이 아주 훌륭하다고, 우리 당의 업적을 잘 반영한 최고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수령님의 탄생 90돐 기념작품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잠시 사색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제목을 <아리랑>이라고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그 심원한 뜻을 헤아리지 못 하는 좌중을 깨우치시려는 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제목을 <아리랑>으로 합시다. 민족의 100년 운명사를 우리 한번 본때 있게 펼쳐봅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현대조선의 력사는 아리랑의 력사라고, 수난의 아리랑이 어떻게 강성부흥아리랑으로 될 수 있었는가를 잘 풀면 대작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김일성민족의 녀이 높뛰는 <아리랑> 제명으로 세기의 대작을 창조하신 우리 장군님의 공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진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단순히 체조예술작품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 뜻 깊은 선물이며 7,000만 조선민족의 위대한 은인께 바치는 뜨거운 송가이다.”

<표 1> 2002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구성¹⁵⁾

장	장제목	경제목	노래	비고
환영장			반갑습니다	
서장	아리랑		아리랑	
1장	아리랑 민족	1경 두만강 넘어	눈물 젖은 두만강	
		2경 조선의 별	조선의 별	
			동지애의 노래	
		3경 내 조국	사향가	
			빛나는 조국	
4경 우리의 총대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2장	선군 아리랑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	내 조국의 밝은 달아	
		2경 활짝 웃어라	장군님과 아이들	
		3경 내 나라의 북소리		
		가) 천지개벽	이 강산 하도 좋아	
		나) 흥하는 내 나라	흥하는 내 나라	
		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좋은 내일로	
		4경 인민의 군대	영원한 심장의 노래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3장	아리랑 무지개	1경 이선남폭포	금수강산 내 나라 그네 뛰는 처녀	
		2경 행복의 락원	추억의 두만강	
		3경 오직 한마음	오직 한마음	
4장	통일 아리랑		아리랑	
			우리는 하나	
종장	강성부흥 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	
			김일성장군의 노래	

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자는 ‘우리 민족은 ‘아리랑민족’이며, 아리랑 민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선의 별’(김일성)을 만나 내 조국을 찾았고, 김정일 시대를

맞아 ‘선군아리랑’이 펼쳐지고 있다. ‘선군 아리랑으로 천지가 개벽하고, 나라도 흥하고, 행복도 찾아오고, 통일을 이루어 강성부흥을 이루어 가자’는 것으로 규정된다.

2) 아리랑의 현대화 양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서 제시한 주제의식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창작을 전후한 여러 창작 <아리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0년을 전후하여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가요가 창작되었으며, <아리랑> 기원과 관련한 소설들도 발표되었다. 북한 최고, 최대의 미술창작사인 만수대창작사에서는 ‘다부작 연속편 대형 조선화’ <아리랑>을 창작하였다.¹⁶⁾ 전문예술가들의 창작과 함께 『아동문학』이나 『청년문학』 등에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일반공모 작품, 아리랑과 관련한 수필이나 일화 등의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1) <아리랑> 가요

① 가요 <통일 아리랑>

북한의 가요 <아리랑>은 <유일팀아리랑>, <통일 아리랑>, <6·15아리랑>, <군민아리랑> 등의 여러 가요가 있다.¹⁷⁾ <유일팀

15)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예술창조목록,”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92(2003)』(문학예술출판사, 2005.12), 241~242쪽.

16) 보도에 의하면 만수대창작사의 대형 조선화 <아리랑>은 ‘수령복 아리랑’과 ‘선군 아리랑’이라는 두 주제로 창작되었는데, ‘수령복 아리랑’ 주제 아래에는 <피눈물의 아리랑>, <광복민족 아리랑>, <태양민족 아리랑> 등의 조선화 작품으로 구성되었고, ‘선군아리랑’이라는 주제 아래는 <전승 아리랑>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북, 대형 수목화 ‘아리랑’ 제작,” 『연합뉴스』, 2002년 3월 12일 참조.

아리랑>은 1989년 제11차 남북체육회담이 합의된 직후에 발표된 아리랑이다. 조병석 작사, 한명철 작곡으로 단일팀 코리아를 응원하는 내용이다. <통일 아리랑>(작사 박두천, 작곡 김운룡)은 2000년 6·15공동선언 직후에 발표된 가요로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희망, 분렬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려는 7천만겨레의 불같은 지향과 의지를 감명 깊게 보여주”는 작품, “우리 나라 민요의 형상적 표현구인 <아리랑>의 정서적 의미에 맞게 민요풍의 선률로 형상하여 민족적 정서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¹⁸⁾ 민요 <돈돌라리>에 통일이라는 주제를 붙여서 만든 <통일 돈돌라리>와 같은 유형의 가요라 할 수 있다.

② 가요 <강성부흥의 아리랑>

2000년 이후 창작된 <아리랑>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윤두근이 작사하고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작곡가 안정호가 작곡한 <강성부흥 아리랑>이다.¹⁹⁾ 북한에서는 “오늘의 금

17) 북한의 여러 아리랑의 가사에 대해서는 김연갑, 『북한 아리랑 연구』 참고.

18) 로영미, “이땅에 차넘치는 조국통일의 열망, 가요 <통일아리랑>을 놓고,” 『조선예술』, 5호(2009년).

19) <강성부흥의 아리랑> 가사는 다음과 같다.

- 1절 무릉도원 꽃피가니 홍이로다 아리랑
 제힘으로 세워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후렴) 장군님의 손길따라 주체강국 나래친다
 아리아리 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강성부흥 아-리-랑
- 2절 일심으로 뭉쳤으니 두렵없이 아리랑
 철벽으로 다졌으니 끄떡없어 아리랑
 (후렴)
- 3절 태양조선 강해가니 존엄높아 아리랑
 태양민족 흥해가니 살기좋아 아리랑

지 높은 시대적 현실을 민족적 정서와 흥취를 담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노래가 큰 견인력을 가지는 것은 가사에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오늘 의 벽찬 숨결을 그대로 담으면서도 강성대국건설의 새 령사를 창조해 가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 열의와 미래에 대한 락관이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상 속에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구현”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⁰⁾

강성부흥은 2000년 이후 북한에서 강조하는 미래상이다. ‘아리랑 민족’으로 명명된 우리 민족의 수난을 김일성의 항일혁명으로 구원되었다는 선민사상과 <아리랑>을 통해 민족의 강성부흥할 미래를 그려보자는 전망을 민요 <아리랑>에서 종자를 뽑은 것이다.

<강성부흥 아리랑>은 인민들에게 ‘강성부흥’의 신념과 낙관을 심어주는 민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 끝없는 환희와 락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의 노래’,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새 아리랑인 <강성부흥아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견인불발의 의지로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돌파한 영웅적 인민의 승전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요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다.²¹⁾

(후렴)

- 20) 리영호, “명가사감상—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새 시대의 아리랑-가요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호(2002년).
- 21) 박철·김영철·최창일, “한 장군님 시대의 명곡, 민족의 긍지 넘치는 기념비적 작품—<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 『로동신문』, 2001년 8월 26일: “음악은 빈 바탕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지난 날 눈물 속에 불리운 <아리랑>은 당대사회의 비참하고 락후한 현실의 산물이었다. 오늘 조국강산에 흥겹게 울려 퍼지는 김정일시대의 새 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은 일심단결로 조국변영의 빛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한 평가와 반향은 절대적이다.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해서는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 끝없는 환희와 락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의 노래”로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새 아리랑인 <강성부흥아리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견인불발의 의지로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돌파한 영웅적인민의 승전기”²²⁾, “지난 날 눈물 속에 불리워진 조선의 <아리랑>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 속에서 행복의 <아리랑>”이 되었으며, “이 노래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용기백배 전진해 나가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아리랑”으로서 “전통적인 조선민요의 조식과 음조들을 적극 살려 주면서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적미감에 맞게 창작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오랜 민족음악인 <아리랑>의 새로운 대표작”²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 시대 김정일시대의 흥취를 강성부흥하니 아리랑 흥이 절로 난다는 철학적이며 량만적인 종자를 심어 사상예술적으로 밝힌” 작품,²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고무하는 투쟁의 찬가, 승리의 노래”²⁵⁾라는 등의 대대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

나는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장엄한 시대가 터쳐 올린 강성부흥가이다.”

22) 위의 글.

23) 위의 글.

24) “<평론> 위대한 시대의 아리랑으로 천만년 전해질 조국번영찬가-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의 가사형상에 대하여,” 『조선예술』, 10호(2001년).

25) 리영호, “명가사감상-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새 시대의 아리랑-가요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

③ 가요(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가요로 김정숙을 형상한 가요이다.²⁶⁾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2007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보아 2007년을 즈음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가요’로 소개하였으나 몇 달 후에는 ‘노래와 춤곡’으로 소개하였다.²⁷⁾ 이러한 소개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의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명명이었다. ‘노래와 춤곡’은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추어 춤도 추게 된 새로운 형식으로 소개한다.²⁸⁾

26)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보천보에 화불 올린 혁명군은 기세 높아
간삼봉의 싸움터엔 노래소리 드높았네
빨찌산녀장군이 선창 떠신 아리랑
봉이마다 릉선마다 뒤흔타고 울렸네

(후렴) 아리랑 스리랑
간삼봉에 불비 와서 아라리가 났네

2절 도천리에 조용조용 부르시던 아리랑
싸움터에 산발 짹짹 메아리로 울리셨네
백발백중 명중탄 불벼락을 안기며
사령부의 안녕 지킨 빨찌산녀장군

(후렴)

3절 하늘에는 번개 번쩍 싸움터엔 총발 번쩍
녀장군의 아리랑에 왜호박이 떼굴떼굴
삼천리를 피에 잠근 섬오랑캐 모조리
통쾌하게 쳐부시고 조국광복 맞으리

(후렴)

27) 『조선예술』 2007년 6호에 실린 김광문의 “<영원한 승리의 아리랑>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을 놓고”에서는 ‘가요’로 소개한 반면, 『조선예술』 2007년 10호에 실린 신호경의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음악형상> 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에는 ‘노래와 춤곡’으로 소개하였다.

28) 신호경,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음악형상> 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 『조선예술』, 10호(2007년): “지난 시기 음악예술작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에 대해서는 김정숙을 통해 선군시대의 총대정신을 표현한 대표 작품,²⁹⁾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형상한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강도 일제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녀장군의 전설적인 모습과 조국과 민족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어머니의 혁명생애가 력력히 어려오는 신대의 명곡”으로 평가하면서, “선군시대가 낳은 특색 있는 음악작품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선전한다.³⁰⁾

(2) <아리랑> 동시

『아동문학』에 소개된 <아리랑> 동시 작품으로는 김학근의 동시 “<아리랑> 막은 단길 줄 모르네”, 연시 “통일아기 큰걸음”, 성연일

품의 종류들 가운데는 노래와 춤곡이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다만 군중무용을 위한 반주음악으로서 무도곡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무도곡은 노래를 위해서 보다는 기본은 춤을 추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창작되었다. 그러나 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 춤도 출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작품은 그 종류적 측면에서 지난 시기에 나온 무도곡들과는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여 노래와 춤곡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지난 시기의 무도곡종류를 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음악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 29) 김광문, “<영원한 승리의 아리랑>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을 놓고,” 『조선예술』, 6호(2007): “어머님 부르신 그날의 아리랑은 오늘 선군으로 존엄 떨치는 아리랑민족의 새 역사를 노래하며 온 세상을 진감하고 있다. 그것은 세기를 두고 바라오던 민족의 소망이 현실로 펼쳐진 선군시대의 거세찬 숨결이며 백두의 봉이마다 울려 퍼진 승리의 아리랑의 연속이다. 어머님 부르신 그날의 아리랑은 오늘 선군으로 존엄 떨치는 아리랑민족의 새 역사를 노래하며 온 세상을 진감하고 있다. 그것은 세기를 두고 바라오던 민족의 소망이 현실로 펼쳐진 선군시대의 거세찬 숨결이며 백두의 봉이마다 울려 퍼진 승리의 아리랑의 연속이다. “참으로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은 백두산장군들의 총대 력사는 곧 아리랑민족의 재생의 력사이며 승리의 력사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 30) 위의 글.

의 서정서사시 “<아리랑> 풍경”, 동시초 “<아리랑>을 노래해요”가 있다.

① 김학근, “<아리랑> 막은 단길 줄 모르네”

김학근의 동시 “<아리랑> 막은 단길 줄 모르네”는 『아동문학』 2005년 10호에 소개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내용을 소재로 한 동시이다. “불밝은 10월의 밤 / 하하 호호 웃음꽃바다 / 5월1일 경기장에 / <아리랑> 막이 열리네 / 나라 잃고 집 잃고 / 쫓겨가던 그 세월 / 얼마나 높고 험했던가요 / 피눈물의 <아리랑> 고개 / ……(중략)…… / 자랑하자 동무야 / 장군님 안겨주신 대축전의 밤 / 높아가는 웃음 속에 / <아리랑>막은 단길 줄 모르네”라는 내용으로 ‘피눈물의 <아리랑> 고개가 대원수님의 뜻을 이어 장군님이 빛내주는 선군시대 꽃세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② 연시, “통일아기 큰걸음”

“통일아기 큰걸음”은 『아동문학』 2006년 6호에 소개된 동시로, 북한을 방문했던 남쪽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던 일을 소재로 한 연시(聯詩)이다. “분계선장벽을 넘고넘어서 / 아빠엄마 사는 곳만 고향이라더니 / ……(중략)…… / 북과 남 해외의 꽃봉오리들 / 손잡고 어서 오라 부르는 평양 / 그래그래 너 이제 집으로 가도 / 이 세상 어디 가도 잊지를 말아 / 북받은 통일동이 너의 고향은 / 선군해님 계시는 평양이란걸”(“잊지를 말아”)이라는 내용이다.

③ 성연일, “<아리랑> 풍경”

성연일의 “<아리랑> 풍경”은 『아동문학』 2006년 9호에 소개된 서

정서사시(형태는 서사시이지만 정서는 서정적인 시)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참가한 라남 소녀 성옥이와 남동생의 공연 참가를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서장에서 “그들속에 보이는 / 라남소녀 성옥이 / 단발머리 날리는 / 성옥이의 가슴에서도 / 샘처럼 솟아나는 / 가지가지 이야기 ……”라고 하였듯이 “<아리랑> 풍경”은 <아리랑> 공연에 참가하게 된 라남 출신의 성옥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된 창작시이다.

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 “누나랑 함께 평양에 올라와 / 교예체조종목에 참가한 성남이”가 누나 성옥을 찾아와 울먹이면서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말한다. 성옥이네가 맡은 부분은 ‘종합적인 기교’여서 “꽤 해내겠는가면서” 머리를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울먹인다. 이 말을 들은 성옥과 친구들이 선생님을 찾아가 “우린 꼭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결심하는 이야기이다. (2)는 확성기로 훈련을 지휘하느라고 목이 쉰 선생님을 위해 성옥이 달걀을 주머니에 넣고 와서 드리는 내용이다. 달걀이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가져가던 성옥이가 선생님 앞에서 그만 넘어지면서 달걀이 깨어지자 선생님이 일으키면서 달래준다는 스토리이다. (3)은 훈련에 몰두해야 할 동생 성남이가 보이지 않자 성옥이가 찾아 나간다. 성남이가 록화실로 갔다는 말을 듣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한들 / 이다지도 철없이 놀 수 있을까”하고 화를 내면서 동생을 찾아 나간다. 그런데 아동영화를 보고 있을 줄 알고 록화실의 문을 열자 “세계교예체조명수들의 / 화면이 흐를 뿐”이었다. 동작을 잘하기 위해 이름난 교예체조 선수들의 동작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4)는 경기장을 찾아 온 장군님의 칭찬을 듣고 경기장에는 축포가 오른다는 내용이다. “쇠사슬에 묶이워 몸부림치던 / 원한의 이 땅을 적시던 <아리랑> / 고향 떠나 조국 떠나 / 살길 찾아 헤매던

<아리랑> 민족이 / 목 놓아 부르던 눈물의 <아리랑> / 보라 세상사람
들이여 / 구름 한 점 없는 저기 하늘가에 / 오늘은 행복의 <아리랑>이
오른다”

④ 동시초, “<아리랑>을 노래해요”

“<아리랑>을 노래해요”는 『이동문학』 2007년 6호에 실린 동시초
로, “<아리랑>초대장을 높이 들고요”, “<아리랑>고개”, “진달래꽃
다발”, “누구편을 들어줄가”, “그날을 약속하세요”로 이루어졌다.

“<아리랑>초대장을 높이 들고요”는 <아리랑> 초대장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리는 내용이다. “<아리
랑>고개”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아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의
아리랑 고개가 눈물고개였듯이, “안 대원수님 아니시면 / 우리 누나
도 / <아리랑> 리별고개 / 눈물치녀 됐을거야”는 내용이다. “진달래
꽃다발”은 아침에 핀 진달래를 보면서 “나도야 어머님처럼 / 전선길
다녀오신 / 아버지장군님께 / 온 나라 마음 담아 / 축원의 마음 담
아 / 삼가 드리고싶어 / 진달래꽃다발”을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누
구편을 들어줄가”는 아리랑의 여러 장면을 떠올리면서 어느 장면이
가장 좋을지,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그
날을 약속하세요”는 아리랑의 줄넘기 장면을 보며 “재미나는 꽃줄
넘기 / 남녘동무 손잡고 / 마음 맞춰 발 맞춰 / 함께 동동 뛰었으면”
하는 바램을 소망하는 내용이다.

(3) <아리랑> 소설

① 김원중, 단편소설 “아리랑”

김원중의 “아리랑”은 김수봉 편집, 단편소설집인 『단편소설집 아리

량』³¹⁾에 수록된 단편소설이다. 김원종의 “아리랑”은 민족음악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과 지식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날 세계 역사대회 참가자들 명단을 보다가 역사학계 원로인 원학준 역이 없는 것을 보고 원학준의 제자인 박동섭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한다. 박동섭을 찾아가는 김정일 위원장의 손에는 ‘록음기’가 있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박동섭을 위하여 손수 록음기를 틀어 놓으면서 원학준의 안부를 물으면서 민족음악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한다는 내용이다.

박동섭은 역사학자이지만 우리 가요를 유난히도 좋아한다. 그런 박동섭에게 김정일이 나타나 직접 록음기를 틀어준 것은 박동섭이 공개 자리에서 민요를 불렀다고 편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박동섭은 오락회 시간에 학생들의 요청에 못 이겨 ‘아리랑’을 멋지게 ‘불러 제졌는데’, 한 초급일군에게서 “혁명가요에 발맞춰 전진하는 이 시대에 그제 어울리는가? 주의하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일을 알게 된 김정일이 직접 박동섭을 찾아와서는 다른 나라의 무곡과 관현악곡을 틀어주고는 감상을 물어보았다. 김정일의 설명을 들은 박동섭이 민요를 부른 것을 후회하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소설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의 형식을 빌린 교술(敎述)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박동섭에게 <아리랑>의 우수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어 설명문에 가깝다.³²⁾ 이어 <아리랑>의 특색과 연원, 그리고 변용에 의한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아리랑>의

31) 김원종, “아리랑”, 김수봉 편, 『단편소설집 아리랑』(평양: 평양출판사, 1989).

32) 위의 글, 47~48쪽.

기원과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연원으로 볼 때 전설과 결부되어 이채를 띠고 널리 보급된 것은 중부 지방의 <아리랑>이다. 곡도 유순하지만 그 가사의 글줄마다에는 실로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 이 리별의 마당에서 성부가 눈물지며 부른 노래가 바로 <아리랑>(나는 랑군님과 리별하네)이었다. 그러므로 노래의 원가사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 아리랑 아난리요
아리랑 고계로 넘어간다.

여기서 ‘아난리요’란 ‘나는 님과 리별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고계’란 ‘고생의 계선’이라는 의미이나 리랑이 실지 그때 재등을 넘어갔으므로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가사의 뜻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나는 랑군님과 리별하네
아, 헤여지기 어려워라
괴롭고 험한한 저 세계로
내 랑군님을 어이 떠나보내리³³⁾

33) 위의 글, 48~49쪽.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진정이 울리는 목소리로 권고하신 다음 조용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 민요 <아리랑>이 나온 지는 오래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퍼져 대대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해외동포들도 이 노래를 다 알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소문난 조선민요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노래에 조선민족의 고유한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민족적 정서와 감정이 풍부히 담겨져 있는 노래는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되는 것이다. …… <아리랑>의 역사와

<아리랑>의 기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혁명가극의 창조사업의 지도’(39~41쪽), ‘민족음악의 중요성에 대한 부문’(44~46쪽), ‘투쟁의 아리랑’(50~51쪽),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강조’(58쪽)의 부분들이 설명으로 되어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하게 여겨야한다는 것으로 끝난다.³⁴⁾ 소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던 시기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김원종의 “아리랑”은 민족문화유산이 왜 중요하며, 외국의 음악이 아닌 우리의 민요, 우리의 <아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해석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교술적 주제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박종철, 중편소설 『아리랑』

박종철의 『아리랑』은 <아리랑>의 대표적인 근원전설로 소개하는

그 연원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 노래는 오랜 세월 수난의 파도를 넘어온 우리 민족의 력사와 운명을 반영하면서 시대에 따라 수많은 변종과 지방적 특색을 가지고 발전해온 민족가요로서 하나의 큰 가요군과 계보를 이루고 있다. 이 노래의 특색은 <아리랑>구에 의하여 후렴구가 형성되고 그것이 선창구와 결합되어 절가를 이루면서 련면히 발전해온 민족가요라는데 있다.”

- 34) 위의 글, 58쪽. “우리가 처음부터 <아리랑>이나 <단군신화>같은 민족문화 유산을 귀중히 여긴 것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력사는 남 못지않게 유구하고 우리의 문화도 남 못지않게 슬기롭습니다. 이처럼 재능 있고 용감한 우리 민족은 앞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번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입니다. 민족적인 것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면 혁명가가 못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되고 보존계승되고 발전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력사와 문화의 창조자, 계승자, 옹호자도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조선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적인 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홀시하겠습니까! ‘지도자동지! ……’ 동섭은 그만 걱정을 참지 못 하여 그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성부와 리랑’ 전설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이다.³⁵⁾ 북한이 소개하는 ‘성부와 리랑’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리조 중엽, 어느 한 마을에 김좌수라고 하는 지주네 집에서 리랑이라고 하는 총각과 성부라고 하는 처녀가 머슴을 살고 있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전에 없었던 흉심한 가뭄으로 하여 흉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가을부터 식량난으로 아우성들이었다. 그렇지만 지주는 이에 아랑곳없이 기어이 도조를 바치라고 하면서 농민들과 소작인들을 못살게 굴었다. 나중에는 매 농가들에서 얼마 안 되는 종곡마저 모조리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마을농민들은 종곡이 있어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제발 그것만은 돌려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빌었다. 그러나 지주는 기어이 농민들에게서 종곡을 빼앗아 가고 말았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폭동을 일으켰는데 리랑과 성부도 이 폭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워낙 교활하기 그지없는 지주는 머슴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빠져 나와 고을관청에 찾아가 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주의 고발을 듣고 난 원은 관군에게 폭동을 진압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온 마을은 농민들의 시체와 피로 물들었다. 이 류혈적인 참변에서 리랑과 성부는 다행히도 관군의 추격에서 몸을 피하여 수락산이라고 하는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그 후 봉건관료배들과 지주들의 착취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고을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리랑은 폭동군의

35)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진로를 밝힌 새 세기의 대결작—<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로동신문』, 2002년 7월 19일. “성부와 리랑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민화로 전하며 <아리랑>이 이 땅에 울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 이 한편의 민요에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의 수난사가 그대로 비껴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 날 자신들의 불우한 운명을 개탄하며 슬픔에 잠겨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의 운명이 구원될 래일을 갈망하여 애절하게 부르기도 해온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이다.”

진압으로 억울하게 죽은 마을사람들의 원쭈를 갚아 줄 결심을 품고 싸움터를 향해 고개를 넘어 갔는데 그때 성부가 사랑하는 남편과의 리별이 서글퍼서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리랑>이란 어원은 문자 그대로 사랑하는 나의 랑군님과 헤어진다는 뜻에서 유래된 곡명이라고도 하며 성부의 남편인 리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³⁶⁾

<아리랑>의 기원 전설과 비교하면 묘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계급갈등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박종철의 『아리랑』은 올바르게 끈고 강직한 청년 리랑과 노래잘하고 예쁜 총각 성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³⁷⁾

36) “조선의 전설 아리랑과 그에 깃든 전설,” 『민족문화유산』, 1호(2001).

37) 중간 제목 없이 13장까지 숫자로 나누어져 있다. 각 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에서는 성부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성부는 세종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자리를 떠났다가 영문도 모르고 여섯 해나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추운 날씨에도 거침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장사치와 장사치의 비단 서른 필을 찾아준다. ‘2~4’에서는 성부와 리랑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부와 리랑의 아버지는 친구 사이로 서로 도우며 살다가 흩어져 살게 되었다. 성부와 리랑은 어린 몸으로서 부모를 잃고 먹을 것 없이 산천을 떠돌다가 세종이 아버지에 의해 목숨을 구한다. 리랑은 자신을 돌보아준 세종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자리를 나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여섯 해를 살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5~6’은 성부와 리랑이 재회하고, 함께 살려고 하지만 거짓 계약서로 성부를 종으로 부리는 임좌수는 벼슬살이를 위해 성부를 서울 양반집으로 보내려 한다. 7~11까지는 이후 리랑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마을사람들은 성부를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몸값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때 리랑의 도움으로 살아난 황주포목상이 찾아와 무명을 내놓는다. 마을 사람들은 성부의 몸값을 가지고 임상빈을 찾아가지만 임상빈은 재물만 빼앗고 도리어 리랑에게 도적 누명을 씌우고는 모진 매를 쳐서 쫓아낸다. 분노한 향곡 사람들은 임상빈이 서울로 보내는 재물을 빼앗고 성부도 구해낸다. 마침내 성부와 리랑은 잔치를 차리고 부부가 되었지만 리랑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작품의 주제는 결말부에 이르러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성부가 “세상을 뒤엎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 몸을 빼앗아 간 량반놈들을 모조리 쳐없애주세요. 그렇게 하여 남께 바치고 싶었던 이 마음의 진정 을, 몸의 순결을, 정의 뜨거움을 바치지 못한 한을 풀어주세요 ……”³⁸⁾ 라고 하면서 장도칼로 생을 마치는 장면과 뒤늦게 찾아 온 리량을 그제 서야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리량은 “악독한 량반세상이 뒤집혀지 고 진정 만백성을 위한 세상이 세워질 때 내 다시 돌아오리라”³⁹⁾는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단편소설 묶음 “<평양아리랑> 찬가”

“<평양아리랑> 찬가”는 『단편소설집 출발점』에 수록된 ‘단편소설 묶음’으로, 장수봉의 “통일아리랑”, 김승기의 “잃은 것과 얻은 것”, 현명수의 “효도관광”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수봉, “통일아리랑 — 한 남조선목사의 수기 중에서”⁴⁰⁾

장수봉의 “통일아리랑”은 ‘한 남조선목사의 수기 중에서’라는 부제

생각한 리량은 마침내 떠나기로 한다. 12~13까지는 성부가 리량을 그리다 죽 는다는 내용이다. 리량이 떠난 다음 윤선달(윤성흠)이 성부를 탐내고, 성부는 윤성흠을 피하여 숲속으로 달아나지만 마침내 잡혀서 옥을 당하게 된다. 이때 리량이 나타나 성부를 구하지만 성부를 오해하고, 떠난다. 리량이 떠난 다음 성부는 오로지 리량이 돌아 올 것을 기다린다. 기다리다 지친 성부는 나무에 기대어 노래 <알리랑>를 부르고, 자결한다. 뒤늦게 리량이 돌아와 후회하면서 세상을 바꿀 것을 결심한다.

38) 김원중, “아리랑”, 208쪽.

39) 위의 글, 215쪽.

40) 장수봉, “통일아리랑(한 남조선목사의 수기 중에서)”,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 평양출판사, 2007).

가 붙어있다. ‘수기’라는 제목이 구태여 강조된 것은 소설이 실제로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다. 소설이면서 소설이 아닌 실제라는 것은 소설 첫 머리에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주인공은 남조선 목사로 “하느님과 성경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해온 교직자 중의 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가서 보고 느낀 잇을 수 없는 소감을 추려서 내놓으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백적인 글로 시작하는 서두 부분을 보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목사로서 진리를 설파하는 일이 된다. 진정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서 수기라는 형식과 목사라는 주인공을 등장시킨 것이다. 여기에 ‘2005년 10월 ×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명기함으로써 사실인 것처럼 설정하였다.”

소설은 목사인 주인공이 아리랑 공연을 참가하기 위해서 갔다가 벌어지는 이야기로, 출발 상황에서부터 도착, 이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 1일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주인공인 목사가 평양에서 느낀 소감과 동행한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축으로 전개된다. 소설에서 표현하는 내용은 남한 내의 아리랑 열풍, 북한의 민족주의와 주체성, 사회주의 교육 제도, <아리랑>의 감동이다. 장수봉의 “통일아리랑”은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쓰인 선전문학의 하나이다. 가장 사실적인 장치를 통해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오는 목소리는 북한 당국의 목소리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 작품이다.⁴¹⁾

41) 처음에는 북한 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들이 <아리랑> 공연을 보고 나서 심경의 변화를 보인다. “코메리카 경제시대가 열린다”고 강조하던 ‘대구에서 온 ‘자유시민연합’ 사무차장을 하는 50대의 조장’은 북한의 주체성에 감동한다.

㉠ 김승기, “잃은 것과 얻은 것”⁴²⁾

김승기의 “잃은 것과 얻은 것”은 아리랑 공연에 참가한 사진작가 정희철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리랑>을 보고 돌아가기 위해서 호텔을 나간 정희철의 방에서 사진봉투를 발견한다. 남측 손님을 안내하던 성윤을 관리인에게 받은 사진 봉투를 들고 옥류관에서 식사를 하던 정희철을 찾아가는다. 옥류관에서 정희철은 냉면을 시켜놓고는 ‘씩어가는 팔당호’와는 다른 대동강물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진 찍고 있었다. 성윤이 사진 봉투를 건네지만 정희철은 어제 밤에 본 <아리랑>을 보면서 출품 사진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김승기의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대동강의 맑고 아름다움에 빠진 희철을 통해 팔당호의 오염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오염의 원인으로 ‘미군부대의 방종’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반미교양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것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 현명수, “효도관광”⁴³⁾

현명수의 “효도관광”은 손자 성진의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아리랑> 공연을 다녀 온 할아버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공연을 마치

목사의 신자인 윤미부인은 <아리랑> 공연을 보고 삶의 희망을 찾는다. 윤미부인은 “한때 풍부한 성량과 미모로 못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인기가수였지만”(193쪽) 화가를 꿈꾸다 자폐증에 걸려 자살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여인이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자살도 몇 번 시도하였다. 이런 윤미부인에 대해 주인공 목사도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194쪽) 스스로 무기력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런 윤미부인이 <아리랑>을 보면서 “전 오늘에야 비로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223쪽)라고 하면서 삶의 희망을 찾는다. 하나님도 주지 못한 희망을 <아리랑>을 통해 얻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42) 김승기, “잃은 것과 얻은 것,”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 평양출판사, 2007).

43) 현명수, “효도관광,”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 평양출판사, 2007).

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빨리 모이게 하라’는 불호령을 내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성진과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할아버지는 미국과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분으로 아리랑 관광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손자의 강권에 다녀와서는 오자마자 집을 나선 것이었다. 아리랑 관광을 그렇게 반대하던 할아버지가 <아리랑>을 보고 오자마자 여행사를 찾아가 손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며 역지를 쓰면서 표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4) <아리랑> 일반 공모 작품

<아리랑>의 확산을 위하여 전문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도 독려되고 있다. <아리랑>을 표제로 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공모 작품이 대중잡지를 통해 실리고 있다. 특히, 『청년문학』에는 2006년 이후 일반인들이 참여한 <아리랑> 가사들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반인의 공모작에는 구체적인 행정구역까지 밝히고 있다.

『청년문학』 2006년 9호에 실린 김춘숙(황해북도 수안군 남정구 47번)의 가사 “우리 집에 넘치는 행복의 아리랑”은 일반인 응모작으로 ‘행복 넘친 우리 집’을 주제로 선군시대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리랑 아리랑 행복의 아리랑’이라는 여음구에 맞춘 가사이다. 『청년문학』 2009년 5호에 실린 가사 “대흥단 아리랑”은 일반인인 이정희(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역 건국2동 26번)가 지은 가사이다. 북한이 식량난 타개의 하나로 만든 대규모 감자농장으로 유명한 대흥단 협동농장을 소재로 노래가사이다.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버림받던 대흥단”이 “수령님 품에 안겨 새롭게 태어났”다는 가사를 아리랑 여음구에 맞춘 것으로, “수령님 품에서 펼쳐진 백두대지 대흥단”이 “장군님 품에서 살기 좋은 락원됐”다는 것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나

날이 좋아지는 대홍단”, “인민의 무릉도원 여기서 내가 사”는 행복을 주제로 한 가요이다. 『청년문학』 2009년 11호에 실린 가사 “석탄폭포 아리랑”은 김현아(평안북도 구장군 룡승중학교)의 가사로 ‘청춘의 목표는 10대 20대의 영웅!’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채탄현장에서 석탄이 폭포처럼 콘베아에 실려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강성대국의 아리랑이 펼쳐진다는 내용이다. 3절의 가사에 “아리랑 아리랑 스리랑 스리랑 석탄폭포아리랑”이 후렴구로 반복되고 있다.

이 세 편의 일반 공모 노래가사 <아리랑>은 ‘행복한 가정’, ‘감자농사의 상징적 고장 대홍단’, ‘석탄’을 주제로 한 가사이다. 행복한 가정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홍단’과 ‘석탄폭포’는 식량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아리랑 민족’으로 지난 날의 고난을 극복하고 선군시대 ‘강성부흥’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 결론

2000년을 전후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아리랑>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강조되고 있다. 2002년 <아리랑> 공연을 비롯하여 창작 <아리랑>을 통해 전사회적인 코드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하고, 체제과시를 위한 상징적 코드로서 아리랑이 선택된 것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김일성민족문학’, ‘태양민족문학’, ‘단군문학’ 등 민족의 상징적 코드를 정치와 결합하여 왔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창작 아리랑은 민족제일주의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코드로서

<아리랑>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 탄생을 기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을 김정일이 직접 ‘아리랑’으로 명명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아리랑’ 코드를 통해 북한 체제의 위기를 민족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시에 아리랑의 종자를 ‘강성부흥’에 맞추으로써 선군시대의 희망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아리랑>의 종자인 선군, 통일, 강성부흥의 코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하여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을 비롯한 가요, 동시, 소설, 군중공모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기획과 보도는 1990년대의 김일성민족, 태양민족 등의 민족담론을 ‘선군’과 ‘강성부흥’의 아리랑민족 담론으로 전환하는 북한의 의도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리랑민족’이다.⁴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1장 제목이었던 ‘아리랑민족’은 2002년 5월 8일 『조선신보』의 기사 “아리랑민족의 힘찬 호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0년 전후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아리랑은 민족정서를 강조한 현대적 창작물이기보다는 ‘아리랑 민족’, ‘김일성 민족’ 등으로 북한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대중적 확산을 시도한 결과물이다. ‘아리랑 민족’으로 지난날의 고난을 극복하고 선군시대 ‘강성부흥’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44) ‘아리랑과 민족담론’에 대해서는 “21세기 문화코드로서 ‘아리랑,’” 『통일문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 2010 북한사회문화학회, 통일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2010년 11월 26일, ‘IV. ‘아리랑’의 민족 담론’ 참고. ‘아리랑과 민족담론’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요한다.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아리랑이 창작되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 접수: 2월 23일 / 수정: 3월 23일 / 채택: 4월 1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논문

- “아리랑”,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154쪽
- “조선의 전설 아리랑과 그에 깃든 전설”, 『민족문화유산』, 1호(2001).
- “<아리랑>을 노래해요”, 『아동문학』, 6호(2007).
- “<평론> 위대한 시대의 아리랑으로 천만 년 전해질 조국번영찬가—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의 가사형상에 대하여”, 『조선예술』, 10호(2001년).
- “아리랑민족의 힘찬 호소”, 『조선신보』, 2002년 5월 8일.
- “통일아기 큰걸음”, 『아동문학』, 6호(2006).
- 권명숙, “새 세기의 기념비적 명작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두고”, 『조선예술』, 12호(2008년).
- 김광문, “<영원한 승리의 아리랑> 가요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을 놓고”, 『조선예술』, 6호(2007).
- 김승기, “읽은 것과 얻은 것”,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 평양출판사, 2007).
- 김원중, “아리랑”, 김수봉 편, 『단편소설집 아리랑』(평양: 평양출판사, 1989).
- 로영미, “이땅에 차넘치는 조국통일의 열망, 가요 <통일아리랑>을 놓고”, 『조선예술』, 5호(2009년).
- 리영호, “명가사감상—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새 시대의 아리랑—가요 <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 『문화어학습』, 1호(2002).
- 박종철, 『아리랑』(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 박형섭,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요 <아리랑>”, 『민족문화유산』, 4호(2005).
- 백 석,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민족문화유산』, 4호(2009).
- 성연일, “<아리랑> 풍경”, 『아동문학』, 9호(2006).
- 신효경,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식 음악형상> 노래와 춤극 <간삼봉에 올린 아리랑>”, 『조선예술』, 10호(2007).
-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1』(평양: 예술교육출판사, 1992).
- 장수봉, “통일아리랑(한 남조선목사의 수기 중에서)”,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 평양출판사, 2007), 186쪽.
- 현명수, “효도관광”, 『단편소설집 출발점』(평양출판사, 2007).

2) 신문 및 기타자료

- “<강성부흥아리랑>은 장군님시대의 명곡, 민족의 긍지 넘치는 기념비적 작품,” 『로동신문』, 2001년 8월 26일.
- “2002년 봄에 막을 올리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선중앙통신』, 2001년 11월 7일.
-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진로를 밝힌 새 세기의 대결작—<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하여,” 『로동신문』, 2002년 7월 19일.
- “일심단결의 시위, 국력의 상징—‘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창조성과에 대하여(5),” 『로동신문』, 2002년 8월 8일.
- 박철·김영철·최창일, “한 장군님 시대의 명곡, 민족의 긍지 넘치는 기념비적 작품—<강성부흥아리랑>에 대하여,” 『로동신문』, 2001년 8월 26일.
- 본사기자 황명희·본사기자 고현주, “선군령장과 <아리랑>—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깃든 불멸의 령도,” 『로동신문』, 2007년 9월 24일.
- 김춘숙, (가사) “우리집에 넘치는 행복의 아리랑,” 『청년문학』, 9호(2006).
- 김학근, (동시) “<아리랑> 막은 단길 줄 모르네,” 『아동문학』, 10호(2005).
- 김현아, (가사) “석탄폭포 아리랑,” 『청년문학』, 11호(2009).
- 리정희, (가사) “대홍단 아리랑,” 『청년문학』, 5호(2009).

2. 국내자료

- 김연갑, 『북한 아리랑 연구』(강릉: 청송, 2002).
- 박상천, “북한 문학예술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적 형식’의 문제,” 『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2002).
- 박영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그리고 남북문화교류,” 『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강의 자료집』(경실련 통일협회, 2007.6.5).
- _____,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7).
- _____, 『북한 연극/희곡의 분석과 전망』(서울: 연극과인간, 2007).
- _____, 『연극/영화 통제정책과 국가 이데올로기』(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7).
- 이창식, “북한 아리랑의 문학적 현상과 인식,” 『한국민요학』(한국민요학회,

2001).

전영선,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 문화예술적 의미,” 『중소연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_____, “북한의 아리랑 축제와 민족예술의 가능성,” 『한국 문화연구』 6집(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9.30), 165~194쪽.

_____, “21세기 문화코드로서 ‘아리랑,’” 『통일문제의 비교·사회학적 접근』, 2010 북한사회문화학회·통일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2010년 11월 26일, 81~103쪽

한민족아리랑연합회 편, 『북한 아리랑 연구』(미래문화사, 2001).

『한국문학과 예술』 6집(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북, 대형 수묵화 ‘아리랑’ 제작,” 『연합뉴스』, 2002년 3월 12일.

“북, 공연 <아리랑>에 김일성賞 수여,” 『연합뉴스』, 2002년 6월 15일.

“북, 대형 수묵화 <아리랑> 제작,” 『연합뉴스』, 2002년 3월 12일.

“집단체조 ‘아리랑’ 원제는 ‘첫 태양의 노래,’” 『연합뉴스』, 2001년 12월 19일.

North Korea's Mass Gymnastic and Artistic Performances - the Arirang Festival

Jeon, Young-Sun(HK Research Professor, Konkuk University)

In North Korea, various kinds of *Arirang* were created in about 2000. Mass Gymnastic and Artistic Performance, “the Arirang Festival” has been performed from 2002 to 2010. Various works of Arirang were released such as songs, childrens’ poem, novels including *Tongil Arirang*, *Gangsung Bubeung Arirang*.

It is the spirit of the times that North Korea would like to emphasize through *Arirang*. North Korea has combined politics with symbolic codes of ethnicity including Kim Il-Sung ethnic culture, *Taeyang Minjok* literature, *Dangun* literature. The creation *Arirang* was also selected as a new code in the line of the excellence of a nation. Through the code, the crisis of North Korea is converted into a national question. At the same time, Arirang presents hope of the army-first era by setting its *chongja* into “Great Prosperity”(Gangsung Bubeung). In this process,

Arirang Minjok is emphasized. The creation *Arirang* is a product North Korea has reconstructed national identity and tried to spread popularly.

Keywords: Arirang, Arirang Festival, Chongjaron(a theory of seed), art of North Korea, ethnic culture